

정책자료 94-06

# 우리經濟의 國際化

金博洙 · 金廷洙

1994. 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우리經濟의 國際化

金博洙 · 金廷洙

1994. 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強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 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化論議는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報告書는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의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고, 우리 경제에 내재된 再跳躍의 潛在力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논의하고 있다. 즉, WTO로 새로이 출범하는 國際交易體制, 環境·勞動 등 새로운 國際經濟規範,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등 새로운 國際經濟與件은 個別經濟主體들로 하여금 공정·개방체제속에서 同一한 條件하에 자구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勞動力, 技術, 資本, 經營 등 그동안 우리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던 모든 생산요소의 質的跳躍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잠재력의 배양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른 國內經濟는, 貿易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등 다양한 國際經濟交流部門에서 力量과 水準을 國際化하여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論議는 아직도 基本概念, 目的, 基本政策方向 및 政策手段面에서 총체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個別部門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종의 논리와 개념이 混在된채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經濟의 國際化를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속에서 자유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세계의 모든 經濟的 資源을 最適運用하여 國際分業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을 基本概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國家競爭力의 強化, 汎世界化的

推進, 制度의 國際化,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등 다섯가지의 國際化의 基本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의 구체적 政策手段들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국제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國際化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本 研究院이 일관되게 노력해 온 그 結實의 하나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하나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國際化論議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데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通商政策室의 金博洙 博士와 金廷洙 博士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초기단계에 논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協力政策室의 朴成勳 博士 그리고 通商政策室의 金寬濤 博士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들 個人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4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 目 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經濟統合의 進展 .....	7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	7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	9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	11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	13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	13
2. 經濟再跳躍의 限界 .....	14
3. 對外經濟觀의 限界 .....	16
4. 開放經濟의 運營能力 制約 .....	18
5. 國際化의 未洽 .....	19
6. 國際化: 再跳躍의 突破口 .....	22
III. 經濟의 國際化 .....	25
1. 國際化의 意味 .....	25
2. 經濟의 國際化 .....	27
IV. 國際化戰略 .....	31
1. 國家競爭力의 強化 .....	31
2. 汎世界化의 推進 .....	39
3. 制度의 國際化 .....	43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	48
5.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	50

V. 21世紀初 國際國家 .....	53
1. G-10 先進經濟 .....	53
2. 汎世界化 經濟 .....	54
3. 世界統合經濟 .....	55
4. 國際寄與經濟 .....	55
附 錄：主要國의 國際化戰略 .....	57

#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經濟統合의 進展

##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 UR協商의 타결에 의해 세계의 自由·公正貿易規範이 확립됨으로써 세계는「하나의 市場」時代를 향한 새로운 章을 열었음.
- 새로운 世界貿易規範은 交易自由化의 범위를 종전의 工產品에서 農산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交易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에 까지 확대함.
  - 특히 UR을 통해 知的產業이 주축을 이루는 서비스交易이 자유화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교역은 商品을 중심으로한 hardware경쟁에서 지식·두뇌·제도운용 등 software경쟁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 또한 知的財産權保護와 政府補助金規制를 통해서 公正무역규범이 엄격해짐으로 하여 향후에는 政府支援에의한 產業育成은 제약을 받게되고 産業의 自力競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됨.
- 開途國의 참여 확대에 따라 새로운 世界貿易規範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됨으로써 世界經濟統合趨勢가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UR에 의해 창설되는 世界貿易機構(WTO)는 GATT를 대체하여 120여 회원국의 國際貿易을 관할하게 되며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정위반에 대한 구속력 있는 制裁措置를 통하여 世界貿易規範의 實效性을 확보할 것임.
- 世界共同規範의 制定 움직임은 環境問題, 경쟁정책, 勤勞基準 및 연구개발지원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확산될 것임.

## GATT 多者間貿易協商

	協商內容	參與國家
1~6次 協商	工產品 관세인하	선진국
7次 協商(TR)	工產品 관세인하 및 非關稅障壁 완화	주로 선진국
8次 協商(UR)	工產品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農産物 및 서비스交易 자유화 知的財産權 보호 투자 자유화 WTO 創設	전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

- 92년 리우회담이래 環境問題에 관한 多者間協商인 그린라운드의 開始가 예고됨.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環境保護가 단순히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持續的 發展(sustainable development)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데 기인함. 환경보호는 開發國의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根源的인 인류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이를 위해서는 貿易의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높아짐.
- 競爭政策에 관한 논의는 UR 및 개별통상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각종시장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철폐된 현단계에서 外國商品과 기업의 進出에 대한 국내의 진입장벽이 현안으로 부각된데서 연유함. 企業活動의 범세계화추세속에서 이제는 국내·국외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 과거처럼 국내안에서의 시장진입에 관한 規制, 競爭政策의 이완된 시행 등이 국제교역상의 현안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경쟁관련 국내제도의 國際規範化가 가속될 것임.
- 勞動政策에 관한 논의는 개도국의 저렴한 상품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해온 선진국이 개도국 상품의 價格競爭力은 개도국내의 열악한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不公正貿易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소위 社會的 投賣(social dumping)의 결과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公正貿易規範을 정립하자는 차

원에서 개별국가의 勞動政策과 근로조건을 國際貿易과 연계하여 다루고자 함.

—이렇게 볼때 環境問題, 競爭政策, 勤勞條件 등 새로운 현안은 직접적으로는 貿易을 規制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적어도 세계교역규범차원에서 보면 公正貿易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확산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規範下에서 경쟁해야 함을 뜻하므로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새로운 機會를 제공함과 동시에 挑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모든 국가에게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요구하고 있음.

##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國家經濟의 相互依存性 심화: 交通 및 통신의 발달과 情報의 폭발적 확산에 따라 모든 개별국가 경제가 세계경제의 일부로 통합되는 세계의 地球村化가 진행됨.

主要國의 貿易依存度\*

	韓國	美國	日本	獨逸	E U	중국
1970	34.6	8.7	18.8	34.8	36.6	5.9
1980	65.0	17.5	25.6	46.6	48.9	15.5
1990	55.7	16.6	17.7	50.0	52.1	30.8
1992	53.8	16.8	15.5	46.4	43.3	36.1

\* (수출 + 수입)/GNP 또는 GDP

-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商品 뿐만 아니라 資本, 技術, 서비스 및 人的資源의 이동 등 경제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 相互依存性의 時代에 폐쇄적인 국가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예를 들어, 미국 다음가는 經濟大國이자 최대의 對外債權國으로 자리잡게 된 日本은 여타선진국들로부터 그 제도와 관행을 포함하여 일본경제의 總體的閉鎖性에 대하여 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됨. 日本의 경우 적어도 制度的으로는 여타 선진국만큼 개방되어 있으나, 外國商品과 企業의 진출을 제약하는 관행과 외국것에 대한 국민의 폐쇄적 사고가 여전히 잔존하여 사실상 開放이 되지 않음. 그 결과 國際經濟社會에서의 입지유지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고 日本의 성장잠재력의 유지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됨.

— 세계 市場經濟圈의 확대: 舊사회주의권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는 單一市場經濟體制에 編入되고 있음.

- 舊蘇·東歐의 사회주의 정권은 閉鎖的인 國家運營에 따라 붕괴되었으며 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국가경제의 회생을 꾀하고 있는 반면, 中國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을 통하여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음.
- 폐쇄적인 輸入代替戰略으로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경험한 中南美국가도 대외개방과 국제화 전략의 추진에 따라 經濟安定과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있음.

—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하나의 세계시장 속에서는 個別企業의 활동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

- 각국의 무역 및 투자의 自由化와 통신 및 수송기술의 발달로 技術的·經濟

的 距離가 축소됨에 따라 무역-해외투자-기업간협업(例: 전략적 제휴)으로 이어지는 企業活動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됨.

- 모든 기업활동이 全世界의 자본, 노동, 기술, 경영 등을 比較優位에 따라 最適結合하여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國際分業의 이익을 극대화함.
- 한 국가내에서 生産, 雇傭 및 販賣活動을 행하고 稅金을 납부하면 기업의 출신국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기업으로 간주됨에 따라 國籍企業의 의미는 점차 상실됨.

###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냉전 종식 이후 세계의 勢力版圖 決定要因으로 경제력이 군사력을 대체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통하여 競爭力의 강화를 꾀함.

- 單一市場을 이룩한 EC는 이를 바탕으로 單一通貨와 共同外交·安保政策까지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EFTA와 동구국가들까지 EU에 편입하는 거대 유럽경제권(EEA)의 형성을 꾀하고 있음.
- 美國은 유럽의 통합움직임에 대응하여 NAFTA를 출범시켰으며, 장차 NAFTA는 중남미국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에서는 ASEAN이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를 출범시켰고, 일본은 對동남아 經濟協力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아시아경제권 形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경제통합체는 이에 속하지 않는 경제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참여국들간에는 交易障壁의 撤廢를 통한 經濟統合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전체로는 일종의 개방적인 교역부문의 확대로 해석하여야 함.

## EEA, NAFTA 및 AFTA의 주요 현황(1992)

	EEA(EU+EFTA)	NAFTA	AFTA
GDP(달러)	7조 5,010억	6조 7,700억	3,380억
인구(명)	3억 7,200만	3억 6,000만	3억 3,200만
무역규모(달러)	3조 2,940억	1조 3,300억	2,070억

—결국, 世界交易規範의 확산, 國家經濟의 상호의존성의 심화, 市場經濟圈 확대, 기업활동의 汎世界化, 地域統合趨勢의 강화 등은 세계경제가 統合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個別企業 및 個別國家가 이러한 통합되는 하나의 世界市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 여부가 그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건이 될 것임.

##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우리나라는 지난 30年間 대외지향적인 工業化의 성공을 통하여 高度成長을 달성하고, 國際的인 位相을 提高해 왔음.

	1960	1992
總GNP 規模	세계 37위	세계 15위
1人當 GNP	세계 83위	세계 32위
貿易規模	세계 51위	세계 13위
造船, 家電, 鐵鋼 및 自動車 生産量 :		세계 1위~6위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제경쟁력강화를 바탕으로 꾸준히,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과감한 開放政策이 추진되어옴. 그 결과 製造業部門의 대부분, 서비스 交易부분의 상당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交易관련제도도 세계규범과의 調和시키는 作業이 진척을 보였음. 비록 농산물부문에 수입자유화율이 90%정도 밖에 되지않고 있으나,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개방의 경험이 일천한 서비스交易의 경우에도 자유화율은 73% 수준에 이르고 있음. 關稅引下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져 平均關稅率이 9%로서 선진국 평균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關稅障壁의 철폐가 추진되었음.

	1980	1993
수입자유화율	69.1%	98.6%
(농수산물)	51.0%	89.9%
관세율	25.2%	8.9%
(농산물)	20~40%	17.8%
외국인투자자유화율	60.9%(1984)	81.7%
(서비스분야)	60.8%(1985)	72.7%

## 2. 經濟再跳躍의 限界

—단순노동과 기술로써 양적확대를 지향하는 지금까지의 經營과 經濟發展戰略을 통해 이룩했던 世界最高率의 成長과 發展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선진국과는 품질경쟁에서 뒤지고 있고, 후진국과는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모든 經濟的資源의 질적수준과 국내 동원능력을 현재의 여건 속에서는 더 이상 키워나갈 수 없기 때문임.

○ 勞動供給能力의 限界: 産業構造高度化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技術人力은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음. 1980년대 중반 低賃經濟에서 高賃經濟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低賃·低技術産業의 합리화 추진은 부진한 가운데 高賃·高技術産業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의 확보대책도 미흡함.

○ 技術動員能力의 限界: 技術保護主義로 인해 과거처럼 기술이전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한편 기술도입비용이 급증하고 세계시장의 수요가 高級化·尖端化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①海外技術의 導入이 容易해지도록 기술교역상의 障壁이 철폐되어야 하고 ②지적재산권 보유의 폭도 모든 기술, 특히 尖端技術

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③국내자체에서 高級技術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育成하거나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은 中級技術을 사용한 제품생산에 안주하는 경향이 남아있음.

- 資本動員能力의 限界: 1980년대 중반이후 3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저축율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와 큰 격차가 유지될 정도로 만성적인 자본부족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대기업편중대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별기업들의 構造高度化 노력을 지원하기에는 資本의 국내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함.
- 經營의 後進性: 高級化·知識化·汎世界化하는 국제적추세속에서도, 양적 확대지향의 경영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적·창의적·적극적인 經營革新 노력이 부족함.

80년대초 이후 과도한 安定一邊倒의 政策基調下에서 정부투자활동의 부진으로, 도로·항만·용수·공업입지 등 hardware 社會間接資本 뿐 아니라 통신 등 software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이 경제성장의 속도와 폭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高度화된 大規模 經濟로의 탈바꿈이 制約받고 있음.

더우기 정부도 官僚主義의 만연으로 인하여 官主導的인 經濟運營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정책의 公開性, 一貫性, 客觀性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供給側面의 제약과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高費用·低效率의 취약한 공급체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되어 있음. 이는 모든 經濟的 思考와 慣行이 國境안의 經濟的資源을 活用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서, 세계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미흡함.

### 3. 對外經濟觀의 限界

—生産으로부터 流通까지 각 단계의 개별활동이 特定國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경제관계에 머무르고 있음. 그 결과 통합되고 있는 世界市場의 활용이 미흡한 수준에 그침.

- 예를 들어, 개도국의 天然資源과 선진국의 중간재를 국내의 중급조립기술로 가공처리·최종생산하여 美國 등 先進國市場에 수출하는 방식의 單線的인 國際供給體系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이렇듯 매영업활동 단계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대외경제관계로 말미암아, 對日貿易逆調, 불안정한 資源供給體系, 높아지는 技術保護要求, 그리고 先進國의 輸入規制 등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음. 이는 세계의 자원과 시장을 최적활용한다는 경영관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함.

—國內市場은 가급적 내국인의 몫으로 남아있도록 애쓰는 閉鎖的 慣行이 잔존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의 전과정을 수행하려는 日本式 經濟運營體制를 앞서가는 선진국형 모델로 인식하여 답습하려는 관행이 상존함.
- 자본의 공급원으로 外國人投資보다는 경영의 통제력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海外借入을 선호하고, 자본과 기술이 流出된다는 이유로 해외투자를 경원시함.

—반면 海外市場 진출에 있어서도 새로운 상품과 품질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보다는 外國의 既存競爭者의 몫을 최대한 蠶食함으로써, 우리만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꾀하여 왔다는 비판도 있음.

##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17

- 「共存共榮」의 世界觀이 부족하여, 「나혼자 잘살기」의식이 만연되어 있음. 공존공영의 세계경영관을 富國의 經濟的侵略 논리로 간주하고 우리와 같은 ‘貧國’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선 ‘나부터 잘살아 보자’는 식으로 대외진출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함.
- 그리하여 세계시장과 자원도 共同活用의 대상으로 보다는 개별시장의 「爭取」와 「獨自活用」의 대상으로 간주함.
- 주요경제와의 「相互依存」을 이들에 대한 「經濟隸屬」으로 인식하고 있음.
  - 무역이나 투자가 서로 확대·심화되는 것을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고 특히 수입과 외국인투자는 ‘침략’으로, 그러나 수출과 해외투자는 ‘진출’로 보는 이율배반적인 대외관을 가지고 있음.

國際化戰略의 부재로 世界市場과 주요국의 對外通商政策의 변화를 대세로서 수용하는 수동적인 「對外經濟政策觀」으로 일관해 옴.

- 우리의 國際的 位相이 提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潛在的인 「小國」의식 때문에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의 구축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부족하였음. 그리하여 이미 정착된 쌍무관계 또는 세계경제질서에 安住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의 국제적 위치와 능력에 맞도록 雙務關係를 개선하거나 세계경제질서 재편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 특히 世界秩序의 형성노력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는 무관하게 先進強大國의 논리만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노력에 동참하기 보다는 그 질서가 구축된 후에 이를 비판하기에 급급함.
- 선진국의 技術保護主義와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추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經濟의 立地를 구축하기위한 종합적인 國際化 戰略이 不在함.

#### 4. 開放經濟의 運營能力 제약

- 閉鎖된 經濟運營으로 인해 國際價格(例: 환율, 금리,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 등 國際經濟與件의 變化가 제대로 國內경제의 運營에 反映되지 못하고 있는 孤立經濟體制가 유지됨.
- 經濟自由化와 經濟安定化, 貿易自由化와 資本自由化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政策基調와 優先順位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쌍무적 통상마찰이나 또는 다자간 협상 등 외부적 계기 또는 충격이 있을 때에 對外摩擦解消 次元에서 성급하게 政策을 결정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함.
- 개방된 자율·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巨視經濟政策의 종합적 추진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음.
  - 金利, 換率 및 物價政策을 상호연계한 政策의 수행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金利, 換率, 物價 등 巨視經濟變數를 자금시장, 외환시장 등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직접통제 또는 관리하는 政策手段으로 看做하는 경향이 있음.
- 1960년대 이후 政府主導의 발전전략수행의 관습에 의존하여 온 결과, 정부지원 및 규제가 철폐되고 資本去來가 자유화되는 開放經濟속에서 安定과 成長이라는 주요 거시경제정책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經濟政策을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함.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資本去來自由化에 대한 논의도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는 경우 자본의 長短期 流出入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換率·物價·金利

등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미세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대비하기 보다는,

- 단시일내에 막대한 자금유입이 있을 경우 通貨膨脹에 의한 物價急騰과 자금유입에 의한 元貨切上 그리고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급속약화로 이어지는 '危機'시나리오를 주로 상정하고 있어, 자본거래자유화의 득실에 대해 균형 있고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

## 5. 國際化의 未洽

-80년대 들어 開放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部門別로 개방과 국제교류가 미약한 부문이 잔존하여 사실상 국제부문과 국내부문으로 國際化의 二重構造가 형성되어 있음.

- 민간부문은 中央, 大都市, 大企業 등을 중심으로 國際化가 진행되어 온 반면, 地方, 中小都市 및 農村, 中小企業 등은 국제화 추세에서 배제되어 옴. 무역이나 투자를 통한 경제적 교류나 문화교류 등 모든 國際交流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국제부문과 국내부문간의 능력과 수준, 그리고 관련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 모든 면에서 二重構造가 고착되어 있음.
- 민간부문 뿐 아니라 政府部門에 있어서도 국제적 교류나 협상의 경험이 풍부한 部處와 그렇지 않은 부처간에는 制度 뿐 아니라 認識·慣行 등에 있어 국제화의 二重構造가 고착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국제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對外的으로도 우리에게 폐쇄적이고 국제화되지 않은 制度和 政策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연구소(IMD)의 1993년도 世界競爭力報告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競爭力은 개도권 15개국중 91년 제3위에서 93년에는 제6위로 급속하게 취약해져 왔음.
- 91~93년 기간중 國內競爭力은 1위에서 2위로 다소 약화되었으나, 國際化는 4위에서 11위로 떨어져, 국제화의 부진이 우리나라의 競爭力 強化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貿易政策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企業의 국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와 輸入商品 차별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5개 開途國중 하위그룹인 11위로 評價되고 있음.

**貿易政策의 企業國際活動支援 程度 (10점만점)**

順位	國 家	點 數	順位	國 家	點 數
1	싱가포르	8.8	9	인도네시아	6.4
2	홍 콩	8.7	10	파키스탄	6.0
3	말레이시아	7.6	11	韓 國	5.7
4	臺 灣	7.3	12	헝 가 리	5.7
5	베네주엘라	7.3	13	印 度	5.4
6	멕 시 코	7.2	14	남 아 공	4.7
7	칠 레	7.2	15	브 라 질	4.3
8	泰 國	6.9			

資料 : IMD, 世界競爭力報告書 1993.

- 또한 資本移動의 國際化 정도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GDP비중을 통해 평가하여도 우리나라의 국제화는 경쟁대상국들에 비하여 진척도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
- 外國人投資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토지취득의 어려움과 高地價, 잦은 노사분규와 高賃金 등 고비용을 초래하는 경제적 여건과, 외국문화와 기업에 대한 排他性과 복잡한 政府規制 등 외국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認識, 慣行 및 制度 등 사회적요인이 자주 지적됨. 그 결과 한 때는 국내의 경제

적 여건과 시장의 잠재성에 의해 증가하던 外國人投資의 유입이 1990년대초

主要國의 外國人投資 및 海外投資의 對GDP比率 推移

(單位 : %)

	外國人投資				海外投資			
	1988	1989	1990	1991	1988	1989	1990	1991
싱가포르	14.7	9.5	11.0	8.9	0.5	1.6	1.4	1.7
말레이시아	2.1	4.5	5.9	7.4	-	-	-	-
벨기에/룩셈부르	3.2	4.3	3.9	4.5	2.3	4.1	3.1	2.9
포르투갈	2.2	3.8	3.5	2.9	0.2	0.2	0.2	0.7
스웨덴	0.8	0.8	0.9	2.7	4.0	5.1	6.2	3.5
泰國	1.9	2.6	3.0	2.2	0.1	0.1	0.2	0.2
英國	2.2	3.3	3.3	2.1	4.4	4.2	1.8	1.9
스페인	2.0	2.2	2.8	2.0	0.4	0.4	0.6	0.6
칠레	0.6	0.7	0.9	1.8	-	-	-	-
그리스	1.7	1.4	1.5	1.6	-	-	-	-
멕시코	0.4	1.3	1.0	1.6	-	-	-	-
네델란드	2.2	3.6	4.0	1.4	2.9	6.7	5.8	3.8
프랑스	0.9	1.1	1.1	1.3	1.5	2.0	2.9	2.0
인도네시아	0.7	0.7	1.0	1.3	-	-	-	-
덴마크	0.5	1.0	0.9	1.2	0.7	2.0	1.1	1.4
中國	0.8	0.8	0.9	1.2	0.2	0.2	0.2	0.2
스위스	0.2	1.6	2.2	1.1				
臺灣	0.9	1.6	1.4	1.0	0.2	0.6	1.0	0.9
터키	0.5	0.8	0.6	0.8	-	-	-	-
獨逸	0.1	0.9	0.6	0.4	1.1	1.5	1.9	1.4
오스트리아	0.4	0.7	0.6	0.4	0.3	0.7	1.1	0.8
韓國	0.5	0.4	0.3	0.4	0.1	0.1	0.3	0.5
美國	1.2	1.3	0.8	0.2	0.4	0.6	0.6	0.5
日本	-0.0	-0.0	0.06	0.04	1.2	1.5	1.6	0.9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3 및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에서 작성.

이후 정체에 있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음.

- 또한 技術人力의 만성적인 부족상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이 常住하기에는 불편하고 불안한 여건과 사회분위기 때문에 外國技術人力의 유입이 부진함.
-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제품과 서비스 등 최종시장에는 개방과 경쟁도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나,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生産要素市場에는 아직도 開放과 國際交流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制度的으로 개방된 경우에도 인식과 관행의 閉鎖性이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됨.

—相互開放과 統合의 움직임이 加速化되는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식과 제도 그리고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閉鎖體制부터 도출되는 「地代(rent)」를 계속 향유하기 위해 기득권자들이 相互保護해 주려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消費者와 農民은 우리기업이 커야한다는 생각에 공업·서비스부문의 개방을 경원시하고, 消費者와 企業은 농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업부문의 保護·支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企業과 農民은 정부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政府規制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등, 相互保護體制가 고착되어 개방이나 경쟁 또는 국제화에 관한 한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음.

## 6. 國際化: 再跳躍의 突破口

—經濟·社會 각 부문에 있어 制度和 慣行의 閉鎖性和 後進性은 個別經濟主體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비효율 구조를 持續·深化시키고 있음.

##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23

- 勞動·資本·經營 등 생산요소의 국내공급능력과 질적도약 잠재력의 제약, 이들의 효율적 국내활용을 저해하는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상태, 그리고 官僚的 政策運營方式은 국내의 高費用·低效率 構造를 深化시켜 왔음.
- 국내를 지향하는 經濟活動과 단선적인 국제경제활동, 폐쇄적인 국내산업조직과 제도, 그리고 여타 경제의 관계에 대한 共存共榮意識의 결여는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통한 우리의 재도약 기회를 상실케 함.
- 소국의식에 기인한 소극적 대외경제정책관과 국제경제의 흐름과 케리된 고립 경제체제의 유지로 인하여 開放·國際經濟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옴.
- 또한 固着된 國際化의 二重構造, 制度 및 慣行의 國際規範과의 케리는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의 역동성과의 연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옴.

우리 經濟·社會의 閉鎖性和 後進性을 극복하고 經濟의 再跳躍을 통해 先進·開放經濟를 구축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國際化를 추진하여야 함.

- 國際化를 통해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경안으로 묶여 있는 우리경제의 공급능력의 제약요건을 타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공급능력의 양적확대와 고도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
- 國際化를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經營資源과 企業活動을 접함으로써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國際經濟關係를 構築할 수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국내산업조직과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또한 認識과 慣行의 國際化를 통하여 世界經濟와의 共存共榮을 지구촌 일원의 생활철학으로 하고 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와 자리를 차지하여, 다변화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수 있음.

- 또한 國際化에 대비한 個別主體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國際化의 二重構造 및 制度와 慣行의 國際規範과의 靑리를 해소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연계와 결속을 깊이하여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즉, 우리경제에 잔존하고 있는 내부지향적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경제재도약을 이룩하고 세계주요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의 추진이 시급함.

### Ⅲ. 經濟의 國際化

#### 1. 國際化의 意味

國際化는 國境없는 지구촌을 무대로 人的·物的·文化交流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

-國際化는 삶의 여러관계가 국내중심에서 세계로 확대되는, 즉 제반 국민생활의 '次元의 變化'를 의미함.

- 국제화는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초월하는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해외요소를 국내요소와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것임.
- 한 국가의 국제화는 기본적으로 개별주체가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외국것에 대하여 개방적인 수용태세를 가지고 자유와 평화, 복지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의식, 그리고 세계속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된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함.

-따라서 국제화의 기본적 내용은

- 첫째, 국제사회에서 손색이 없는 역량, 즉 모든 국가간 교류의 諸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 둘째, 法 制度和 관행면에서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즉 국제규범화를 근간으로 함.

〈國際化와 世界化: 그 概念간의 關係〉

— 開放經濟로의 轉換에 관한 國內論議에 國際化와 世界化의 概念이 混在되어 사용되고 있음.

○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는 自由貿易體制로의 전환을 主내용으로 經濟學的 觀點에서 제시되고 있고,

○ 世界化(globalization)는 企業活動의 多國籍化를 근간으로하는 經濟交流의 汎 世界化를 主내용으로 經營學的 觀點에서 논의되고 있는 概念임.

— 國際化와 世界化 모두 國家間的 關係의 擴大 그리고 이를 위한 開放體制의 구축을 의미함. 그러나 兩概念간에는 主體, 對外關係의 성격, 國家間 統合程度 등 측면에서 段階的 差異가 있음.

○ 國際化는 國家를 개별단위로 하여 文化· 경제활동의 國家間 自由로운 交流 와 이를 통한 의식 및 관행의 國家間 調和가 主내용임. 이에 반해 世界化는 세계를 國境없는 하나의 地球村으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世界體制와 완전히 統合되는 것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음.

○ 國際化는 기본적으로 同等한 國家들로 구성된 國際社會를 상정하여 共存共榮의 정신을 바탕으로 國家간 關係를 설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있는 반면, 世界化는 均質化된 單一市場· 單一社會를 상정하여 한 國家의 세계로의 進出과 세계와의 統合을 追求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하고 있음.

○ 國家間關係의 發展面에서 國際化는 個別國家를 기본단위로 하여 相互補完的 自由交流段階에 이름을 의미하고, 世界化는 인식, 제도 와 관행 등 社會의 諸側面에서 完全統合段階에 이름을 의미함.

—두 概念을 別個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國際化가 進展될 수록 그만큼 世界化가 자연스럽게 達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렇게 볼때, 중견국가로 자리잡고 있는 韓國의 現位相을 고려할 때 先進立國을 위한 基本戰略은 現在段階에서는 國際化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의 國際化는 일방적 대외진출이 아닌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상정하여야 함.

즉, 우리의 國際化는

- 우리의 對外進出의 幅과 基盤을 확대하고 심화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우리의 位相을 제고하고,
- 海外의 문화와 경제적 자원의 自由로운 流入을 통하여 인식, 제도 및 관행의 先進化, 즉, 국가의 總體的 效率을 높임으로써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力量을 極大化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여야 함.

## 2. 經濟의 國際化

經濟의 國際化는 세계경제의 統合趨勢속에서 自由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세계의 모든 經濟資源을 最適運用하여 국제분업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국제화는 國內外的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경제를 세

계경제속에서 협력의 '주변'이 아닌 협력의 '센터'로서 제위치를 정립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國際化된 경제는

- 첫째, 국제경제사회의 보편타당한 規範과 調和를 이루는 制度와 慣行이 갖추어져 있고,
- 둘째, 商品, 서비스, 生産要素 등 모든 經濟的 資源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등한 경쟁조건이 보장되는 公正·開放體制가 확립되어 있으며,
- 셋째, 個別經濟主體가 국제수준에 이르는 역량으로 모든 經濟活動에서 세계시장의 활용을 極大化하면서
- 넷째, 세계경제의 共存共榮에 이바지하는 경제임.

1) 認識, 能力, 制度의 轉換

—우리경제의 國際化는 인식면에서 “세계적 사고로의 轉換”, 능력면에서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제도면에서 “국제규범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가. 視角의 轉換: 세계적 사고

소극적·폐쇄주의적 思考에서 탈피하여, 世界경제가 하나의 시장·하나의 경제共同體라는 인식하에 地球村 家族의 일원으로서 그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도록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世界的 思考로의 轉換.

나. 能力의 培養: 국제경쟁력의 강화

개별주체들의 국제경쟁력강화노력을 통해 急變하는 對內外 經濟與件에 能動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世界人」(global players)의 培養.

다. 制度의 국제규범화

國家間的 交流를 가로막는 諸 要因을 除去하고 우리의 制度와 慣行을 公正·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國際規範과 調和.

2) 國際化의 二重構造 解消

—國際化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認識, 能力, 制度의 혁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落後部門에 대한 對備를 철저히 함으로써, 均衡을 이룬 국가의 총체적인 변화로서의 國際化가 이루어져야 함.

國際化 先導部門		國際化 落後部門
위	→	아래
중앙	→	지방
도시	→	농촌
대기업	→	중소기업
대외개방중심	→	경제협력중심
국경장벽철폐	→	국내규제철폐
제도적 장벽철폐	→	관행의 국제화



## IV. 國際化戰略

### 1. 國家競爭力의 강화

#### (1) 開放體制와 國際競爭力強化

—경제적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概念의 혼돈이 國際化和 國際競爭力강화간에 일어나고 있음. 특히, 국제화를 無防備상태의 開放으로 치부하는 한편, 국제화의 수용이 강요되는 상황에서는 國家競爭力의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單純論理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

—과거에는 閉鎖體制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국제경쟁력강화가 가능하였음.

○ 援助負擔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발전에 대해 先進國들이 肯定的인 觀點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선진국들이 開途國의 輸出에 대해서도 비교적 개방적인 市場을 제공하였음.

○ 이러한 세계경제여건속에서 개도국들은 保護와 政府支援을 통해 국내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강화를 꾀할 수 있었음.

○ 또한 국내적으로도 豊富한 국내부존 勞動力, 저렴한 導入技術, 안정적인 外資 導入과 (성장에 의해 창출되는) 國內資本을 활용하여 폐쇄적인 체제속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음.

—80년대이후 개도국경제발전의 기본요건이 變化되어 이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은 개방·공정무역체제안에서만 가능해짐.

- 對外指向的인 경제발전전략에 의한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선진국의 成長基盤을 威脅하게 되고 선진국경제의 장기적 부진은 개방적인 세계시장의 안정적인 伸張을 阻害하게 되었음.
  - 보호와 정부지원에 의한 국내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강화도 국가간 相互主義가 強化되는 추세속에서 더 이상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등 세계경제여건이 惡化되었음.
  -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個別國家의 政策은 범세계적으로 확립되는 開放·公正貿易體制에 합당하게 수립·추진되어야 함.
- 國內的으로도 폐쇄적인 발전전략을 통해서는 더 이상의 經濟發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開放에 의한 국제경쟁력강화노력의 誘導가 시급한 단계에 이르렀음.
- 國際化와 國際競爭力強化는 相互補完하는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함.
- 開放과 國際化가 추진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合理化와 高度化를 중심으로한 구조개선노력이 촉발되어 그 결과로 國際競爭力이 강화될 것임.
  - 반대로 國內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화가 더욱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음.
  - 결국 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화없이는 국내의 국제경쟁력강화노력이 기대될 수 없고, 국제경쟁력 강화없이는 국제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음.
- 商品의 輸出入이 對外去來의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부분적 개방시대에는 국제경쟁력은 주로 商品의 輸出競爭力을 의미했음.
- 商品의 輸出競爭力은 임금, 금리, 지대 등 요소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價格競

爭力과 품질, 디자인, 납기 등에 의해 결정되는 非價格競爭力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교역의 自由化가 經濟의 全部門에 걸쳐 일어나는 오늘날의 地球村時代에는 국제경쟁력은 政府, 企業, 勤勞者 등 개별경제주체의 競爭力의 총화, 소위 國家競爭力에 의해 결정됨.

## (2) 經濟主體別 國家競爭力強化方案

國際化的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內外 市場에서 다양한 형태의 “無限競爭”에 이길 수 있도록 政府, 企業, 勤勞者 등 모든 經濟主體의 內部力量 極大化가 선행되어야 함.

### 1) 政府部門

政府는 行政의 質과 能率의 提高를 통하여 자체의 生産性을 向上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企業 등 여타 經濟主體에게 선택의 幅을 넓혀주고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與件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自律과 創意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임.

○ 민간경제부문을 관리나 統制의 對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부흥이라는 共同의 利益을 추구하는 協力파트너로 인식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企業型 國家運營方式을 채택하여야 함.

政府의 生産性 向上 : 政府의 行政能力이 국가간 경쟁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政府役割에 대한 認識의 轉換, 政府機能의 效率化, 행정의 知識·情報化, 組織의 伸縮性 提高가 이루어져야 함.

〈國際競爭力의 強化〉

○ 政府部門

- 行政의 效率提高 : 정보화·서비스화
- 民間經濟主體의 경쟁여건 造成
  - 經濟安定과 開放經濟의 巨視政策 運用
  - 규제의 완화에 의한 競爭與件 造成
- 민간의 國際競爭力 강화노력 支援
  -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制度 改善
- 教育개혁을 통한 世界經濟人의 養成
  - 세계경쟁을 위한 특화·專門化 人力 養成
  - 지구촌가족 의식의 배양
  - 다양한 자질 함양
- 技術先進化를 위한 R&D 投資 擴大
  - 環境保護 및 改善
  - 생명공학·우주개발 분야
  - 보건·위생분야의 선진화

○ 企業部門

- 國際經營觀의 확립
- 세계수요에 부응하는 리스트럭처링
- 틈새(niche)시장개발: 세계일류상품의 生産 및 販賣
- 人力管理의 획기적 改善

- 伸縮的인 組織의 運營과 官僚社會開放에 의한 競爭의 導入 : 정책수요에 따른 組織調整, 특정분야의 民間專門家의 활용, 부처간 인적교류, 국제기구 파견 등 국제교류의 확대.

- 통제와 규제중심의 官僚意識 打破와 서비스 의식의 함양: 상거래의 기본틀과 허용여부, 소득창출의 방법 및 수준, 소비의 형태 및 수준 등 민간의 모든 經濟活動을 統制하려는 종래의 관료의식을 타파하고 經濟主體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政府의 역할이라는 의식을 함양함.
- 經濟論理에 의한 政策의 樹立과 一貫性, 透明性, 公正性 및 效率性이 유지되는 정책의 집행.

經濟主體의 경쟁여건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 巨視經濟 安定을 위한 政策의 體系的 推進
  - 物價, 金利, 換率 등 거시경제변수를 정책수단으로 간주, 직접적으로 통제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 市場原理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
  - 巨視經濟政策은 이들 변수들이 투자 등 國際競爭力 강화노력이 계속될 수 있는 수준에서 安定的으로 維持되어야 함.
- 規制의 緩和에 의한 競爭與件 造成
  - 규제철폐를 통해 民間의 창의가 自生的 競爭力培養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經濟活動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여 自由競爭을 보장하고 재벌 등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규모를 기준으로 한 사회형평차원에서 운용되던 차별적인 기업관리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예: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폐지). 競爭法은 엄격하게 적용하되, 競爭을 제한하는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은 事後의으로 철저히 규제하여야 함. 따라서 개인에의 경제력 집중은 경쟁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所得稅, 相續稅 등 稅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억제해야 할 것임.

- 環境保護, 公共衛生, 安保, 公共倫理를 유지하는 목적외에 기업의 국내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規制가 原則적으로 撤廢되는 規制의 네가티브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 規制방식도 직접규제에서 市場經濟原理를 이용한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되어야 함.
- 公企業에 대한 가격통제, 신규진입 제한, 金融·稅制上的 특혜를 철폐하고 과감한 合理化 또는 民營化를 추진하고 民間企業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경쟁여건을 개선하여야 함.

—民間의 國際競爭力 強化努力을 支援 : 국제경쟁력의 강화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直接的인 支援보다는 教育, 技術開發, 社會間接資本 등에 대한 政府投資의 확대를 통해 間接支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産業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비전제시: 국내외시장에서 선진국 상품과 후발 개도국상품의 협공을 받고 있는 우리상품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産業의 高附加價値化가 유일한 선택임. 이를 위해 政府는 産業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공정한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技術開發의 促進, 機械·部品産業 및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海外의 技術 및 市場關聯情報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임.
-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도로, 항만, 공항 등 hardware 社會간접자본과 고속정보망 등 通信을 중심으로 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한 software 社會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으로 선진정보지식사회의 조기정착을 유도.
- 勞使關係安定을 위한 制度改善: 노사관계를 그 동안의 대립구조에서 協力構造로 轉換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勞使問題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계의 확립으로 勞使共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R&D 投資擴充을 통해 지식화·첨단기술화하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세계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선진입국의 기반을 조성.

- 環境保護와 이를 위한 制度的 改善: 環境보호를 향후 경제활동의 주요한 요소로서 인식하고, 環境보호를 위한 投資를 擴大하고 相關산업을 育成함으로써 環境보호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
- 生命工學·宇宙開發 등 尖端技術分野에 대한 投資擴大: 우수한 科學·技術 人力을 養成·活用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업화 활동을 연계하여 첨단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기술화의 기반을 조성.
- 保健·衛生分野의 先進化: 保健·위생분야의 산업기반확충과 人力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등 相關제도를 개선하여 선진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

— 世界經濟人으로서의 人力資源開發 :

- 우리국민 특유의 勤勉性和 높은 教育熱을 결합하여 우리의 절대적 우위요소인 人的資源을 보다 적극적으로 啓發하여야 함.
- 개개인이 지구촌가족의 一員으로서 公正한 權利를 享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한 責任과 義務를 다할 수 있는 즉, 自律과 責任을 調和시킬 수 있고 타인과 세계의 文化를 理解할 수 있는 意識의 培養에 애써야 함(例: 國際規範과 基礎素養의 습득).
- 教育改革을 통한 창의적·특화된 人적자원개발: 汎世界化되고 있는 經濟의 時代的 要求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資質을 갖춘 「世界經濟人」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지금까지의 劃一的· 注入式 教育體系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創意性이 발휘되고 개인의 특화된 자질개발이 가능한 교육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 이와 아울러 科學 및 技術教育을 擴大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고등교육 기관에서 競爭 및 市場原理를 導入하여 교육기관자체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 知識· 技術· 情報化하는 세계경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식노동자화, 첨단기술자화, 고급두뇌화를 통해 個別部門에서 세계의 여타근로자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自己啓發 노력을 지원하여야 함.

## 2) 企業部門

- 無限競爭時代에 기업이 國內外市場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의 可用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最高品質· 最低價格의 商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經營革新을 이루어야 함.
- “國際經營觀”의 확립: 정부에 대해 金利引下, 貨金凍結, 政府支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政府依存的인 경영사고에서 탈피하여, 該當産業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개별기업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발하는 경영사고로 전환하여야 함.
- 획기적인 리스트럭처링: 기업의 경쟁력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價格競爭力向上, 長期的으로는 品質競爭力의 提高로 추진되어야 함.
- 競爭力이 상실되었거나 약화된 분야는 賣却 또는 海外移轉을 통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고, 費用節減을 위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단행하며, 신축성· 효율성 및 창의성을 기준으로 한 經營改革을 단행하여야 할 것임.

- 세계일류상품의 生産 및 販賣 지향: 무한경쟁시대에는 고객의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세계일류상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세계일류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獨自의인 기술개발체계의 확립으로 新技術·新商品의 開發 및 상품의 高附加價値化를 지향하고, 多品種·少量生産과 세계를 單一市場으로 한 유통망을 통해 세계고객의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人力管理의 획기적 改善: 個別企業이 세계의 우수기업과 無限競爭에서 생존하기 위하여는 勞使가 세계경쟁의 共同運命體라는 인식으로 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高技能 숙련노동력의 創意를 誘發하고, 人力再訓練 및 國際人養成體制를 確立하며, 직무·직능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2. 汎世界化의 推進

- 戰略的 提携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동의 汎世界化는 향후 國際競爭의 관건인 技術革新 및 經營國際化를 위한 핵심적 요소로 부각될 것임.
- 技術投資費用의 거대화와 生産要素·中間材·最終生産·流通이 각 段階別로 特化하는 추세에 따라 情報·技術·資産·營業機會의 公有를 특징으로 하는 戰略的 提携를 중심으로 한 汎世界化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單純貿易(국내생산-해외판매), 海外投資(해외생산-해외판매), 전략적 제휴로 이어지는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단계중, 대부분의 우리기업은 주로 OEM에 의한 단순무역단계에 머물고 있음.

企業活動의 汎世界化段階

	貿易	中間財 海外投資	最終財 海外投資	汎世界化
生産要素	外國資本·技術 國內勞動力	外國勞動力 國內資本·技術· 勞動力	外國勞動力·技術 國內資本·技術· 勞動力	外國資本·技術· 勞動力 國內資本·技術· 勞動力
中間財	外國輸入 國內生産	外國生産 國內生産	外國生産 國內生産	外國企業 海外生産 自社國內生産
最終生産	國內生産	國內生産	海外生産 國內生産	外國企業 海外生産 自社國內生産
流通	自社流通網	自社流通網	自社流通網	自社流通網 外國企業流通網

- 일부 시행되고 있는 海外投資도 대부분 低賃國家의 단순노동력을 이용·  
조립생산하여 自社の 流通網에 의해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외국

〈汎世界化的의 推進〉

- 國際經營人의 育成: 현지전문가 및 기업간제휴 전문가
- 인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 低賃産業의 海外移轉, 고급기술인력의 유입
- 상관행의 공정화·명료화
- 행정규제 등 해외영업 규제요소의 제거
- 競爭法의 國際規範化
- 海外現地企業의 現地化
- 本社 高유 經營資産의 확충

의 高級技術, 資本, 流通을 포함한 外國기업의 經營資產의 활용은 부진함.

汎世界化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國際分業體制의 참여가 시급함.

- 企業內 人력을 海外(勞動·資本·技術 등) 生産要素와 (市場情報, 流通網, 技術開發力 등) 經營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國際經營人」으로 育成하여야 함.
  - 現地專門家 養成: 海外投資對象地域 또는 外國협력업체주재국의 언어소통능력을 갖춘후 해당지역과의 협력사업에 人력을 투입하되, 부수적으로 해당지역의 文化·生活慣習 뿐 아니라 상관행과 제도에 관하여 專門的 知識과 理解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해당분야에 전문가라면 해외교포·현지인·본사직원 구분없이 專門人力으로서 확보하고 育成하여야 함.
  - 해외기업의 合併 및 引受(M&A), 전략적 제휴 등 汎世界化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 海外投資 및 合作과 관련하여 關連국의 기업의 설립, 인수 및 합병, 전략적 제휴와 關連한 法(특히, 競爭法)과 制度에 익숙한 人力을 養成하여야 함.
- 勞動力을 포함한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고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하여, 低賃産業은 低賃開途國에 대한 해외이전을 촉진하고 高賃産業은 専門기술인력의 유입을 장려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노동력·자본·기술·經營자산을 포함한 모든 生産要素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되, 國內 노동력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低賃 海外勤勞者의 유입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 國內의 低賃産業의 構造調整 및 合理化가 지연된 低技術産業構造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집약적인 저기술 산업은 해외이전을 포함한 합리와 省力化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高賃·高技術産業의 경우에는 技術人力 및 高度技術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함.

- 公正去來慣行의 早期定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고 또 국내외기업 간에 合作 및 協業이 진행되는 경우, 상관행의 차이 때문에 협력관계의 심화가 저해 받을 수 있음. 특히 빈번히 지적되는 rebate, 음성적 회계관행 등 국내기업의 상관행이 조속히 공정화·공개화 되어야 함.
- 行政規制를 포함하여 국내기업의 汎世界化에 대한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 국내기업의 海外投資 및 外國人投資 制度의 整備, 특히 국내외기업의 국내의 金融 및 資産取得 또는 기술인력의 고용에 관한 규제 철폐(외국인 투자제도 관련 후술내용 참조).
  - 國內 獨寡占法을 國際規範과 調和: 戰略的 提携를 포함하여 기업활동이 汎世界化되면, 기업활동의 무국적화로 국내의 競爭法 적용의 범위와 대상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비하여 국내의 경쟁관련 법령을 外國人投資 및 戰略的 提携에 대한 규제의 철폐를 가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제적 관련사례 및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함.
- 국내기업이 투자한 海外現地企業을 단순노동력·기술인력·현지금융·현지유통망 활용 등 각 단계별로 자율권을 확대시킴으로써 現地化를 추진하고, 이로 부터의 경험을 토대로 現地企業과의 戰略的 提携를 모색함.
  - 海外投資支社의 獨立採算制 導入: 現地化에 대한 장기적 구상을 마련하고, 海外現地企業에서 중국에는 現地人을 최고경영인으로 육성하고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自律的인 경영권한을 부여함.
- 外國企業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반으로 國內本社의 고유한 技術과 流通網 등 經營資産을 확보: 經營資産의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수요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요소중 國內本社가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여타지역에서 동원가

능한 최적의 經營資產, 즉 戰略的 提携의 상대기업이 보유한 최적경영자 산요소를 파악하여야 함. 국내본사도 전략적 제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勞動力, 技術人力, 資本動員力, 固有技術, 流通網 등 고유경영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3. 制度의 國際化

— 制度의 國際化는 ①實效性있는 開放, ②制度의 國際規範과의 一致 내지 調和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

#### 〈制度의 國際化〉

- 實效性있는 開放
  - 합리적 消費慣行의 유도
  - 실질적인 交易開放을 통한 경쟁적 공급체계 확립: 對外開放과 國內市場進入 障壁撤廢
  - 外國人投資의 실질적 개방과 적극유치
- 國際規範과의 調和
  - WTO規範의 조속정착
  - OECD加入을 위한 制度調整
  - 國際環境協約 등 새로운 國際規範의 조기수용
  - 國際規範과 統一間의 관계 고려

#### (1) 實效性있는 開放

— 개별경제주체로 하여금 국제수준의 競爭力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國內競爭與件이 造成되어야 함. 그리하여 국경장벽 철폐, 즉 대외개방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진입장벽의 철폐, 즉 국내안에서 국내외기업의 자유롭고 公正한 商去來가 이루어지도록 대내외의 각종 규제철폐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國內의 구분없는 自由·公正 競爭秩序가 確立되어야 함.

#### 〈合理的 消費慣行의 誘導〉

- 상품을 국산품·외국제품에 구분없이 最高級品質의 最低價 製品과 서비스를 選好하는 합리적 소비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 소비지출의 비중이 큰 품목과 서비스부터 정기적으로(예를 들면 상·하반기) 주요 國產製品 및 서비스 價格과 海外製品 및 서비스 價格間의 격차(즉, 保護障壁의 社會費用)에 대한 情報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정부서비스를 통해 消費者의 合理的 意思決定을 유도함.

#### 〈實質的인 交易開放을 통한 效率的인 경쟁적 공급체계 확립〉

- 輸入商品(工產品 및 農產物) 關稅引下 및 通關節次의 명료화와 간소화, 유통 등 국내진입장벽의 철폐:
  - 關稅引下를 통한 보호장벽철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치품 등도 포함하여 關稅保護率의 품목간 격차를 해소해 가야하며 (消費抑制를 위한 정책목표는 關稅보다는 國內 間接稅率의 조절로 달성해 나가야 함),
  - 일단 輸入이 開放된 품목에 관하여는 國內의 유통행위에 장애가 되는 복잡한 通關節次를 簡素化·明瞭化하여 통관당국의 恣意的인 절차집행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 일단 통관이 된 이후 유통을 포함한 國內의 市場進入障壁을 철폐하여야

함. 특히 축산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입이나 국내유통에 政府의 정책의 지가 과다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관행은 우선 民間 個別企業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競爭을 導入하든가 또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함.

- 金融 등 서비스市場의 개방과 실질적 국내進入障壁 除去:
  - 農業 및 工業部門의 경쟁력 제고 노력에 국내의 낙후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예: 金融, 保險, 運送 등) 이들 부문에 대한 우선적 개방을 통하여 이들 부문들의 構造改善 노력을 촉진하고,
  - 일단 개방된 부문의 외국기업 진출에 대하여는 잔존 國內市場進入障壁을 동시에 철폐해 나가야 開放과 規制撤廢의 소기의 政策目標을 달성할 수 있음. 특히 金融·流通·保險 등 서비스부문의 국내영업상의 각종제한(예: 지역별 점포수 제한, 점포규모 제한, 金融商品의 制限, 利率率을 포함한 金融서비스料率 制限)의 철폐가 요망됨.
- 政府調達制度의 改善을 통한 對外開放과 對內市場進入障壁 除去:
  -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의 對外開放이 이미 UR을 통하여 합의된 이상, 정부조달사업부문에 잔존해 있는 中小入札企業에 대한 특혜 등의 관행은 철폐되어야 하고, 公開入札制를 원칙으로 조속 전환함으로써 정부조달행정의 명료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外國人投資에 대한 實質的開放과 유치〉

- 외국기업에 대한 內國民待遇原則 遵守
- 國內外企業에 대해 참여가 허용된 지역별경제특구 설립: 경제개발, 특히 國際化的 추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하에 있었던 地方經濟의 경우, 고유의 투자여건(토지, 노동력, 주요시장근접성, SOC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個別地方에 특화된 經濟特區 설립을 허용하여 지역경제의 자발적인 國際

化 努力을 支援하여야 함.

- 관련 절차를 一括處理(one-stop service)하는 외국인투자처리기구를 설립:  
외국인투자 희망업체에 대해 공장설립, 부지선책, 노동력확보, 금융, 하청  
업체 연결, 합작대상업체의 소개 등 모든 관련 情報와 서비스를 提供
- 外國人의 100% 지분소유 許容
-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동반가족 취업의 허용
-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에 필요한 資本去來의 自由化

## (2) 國際規範과의 調和

—우리의 새로운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國際社會에서 통용되는 규  
범들과 우리나라의 각종 慣行 및 法制度를 조화시켜야 함.

- 世界貿易機構(WTO)의 設立, 정부보조금 등 각종 부문별 規範의 強化 및  
明瞭化, 紛爭解決節次의 強化 등 변화된 世界貿易 규범을 조속히 우리의  
貿易關聯 國內制度 및 慣行으로 정착시켜야 함.
  - 輸入規制는 원칙적으로 WTO규범에 일치하는 緊急輸入制限措置를 통해  
서만 실시하여야 함.
  - 多者間 貿易體制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最惠國待遇(無差別) 원칙에 정면  
으로 위배되는 輸入先多邊化 제도의 적용범위를 극소화하든가 또는 철폐  
하여야 함.
  - 정책당국의 恣意性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는 調整關稅 및 緊急關稅의 援  
用을 최소화하거나 철폐하여야 함.
  -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産業政策手段이 개발되어야 함. 즉, 特定産業을 금  
융·조세·시장폐쇄·국내경쟁제한 등의 直接的인 수단으로 육성하는  
政府主導의 산업정책방식에서 탈피, 사회간접자본 확충·안정기조유

지·기술개발지원·인력양성·대의개방·대내경쟁촉진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民間의 自律에 의해 構造調整이 이루어지도록 誘導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紛爭解決도 쌍무간 통상마찰해소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원칙적으로 WTO의 多者機構內에 설비된 紛爭解決節次를 통하여 공개적인 명료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해결을 모색하는 慣行이 정착되어야 함.
- 國際環境協約 등 國際的 義務事項을 적극 이행하고 이를 國內環境·經濟·社會政策에 효과적으로 統合해 나가도록 해야 함.
  - Agenda 21 등 國際環境協約을 조속히 국내법과 제도에 반영함과 동시에 환경기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야 함. 環境保護를 위한 무역규제를 단순히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 무역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 世界環境保護를 통해 지속적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共同努力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
  - 새로이 부각하는 노동에 관한 國際協約도 우리 국내의 노동관련법의 정비와 노동조건 개선노력을 통해 國際交易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對備策을 강구하여야 함.
- 1996年을 目標로 하고 있는 OECD 加入은 우리의 國際的 位相을 제고시키고, 先進國과의 政策協議를 원활케 하며, 특히 우리 制度와 慣行을 國際化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OECD 加入要件인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의 自由化規約 履行 및 開途國 公的開發援助(ODA) 提供 등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制度的 調整을 실시. OECD 가입요건인 資本去來 및 經常貿易外去來의 자유화를 국내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開放計劃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이들 對外去來의 완전자유화를 가정하여 開放經濟속에서 안정·성장·국제수지균형 등 거시경제정책 목표들을 調和롭게 달성할 수 있는 政策手段을 조속히 개발하여 그 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함.

- 高度화된 經濟運用方式에 관한 OECD회원국의 축적된 經驗과 情報를 활용하여 90年代의 새로운 貿易懸案으로 대두되고 있는 環境, 競爭政策 등에 대한 우리의 정책수립에 활용.

—이와 같이 國內의 制度와 慣行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 明瞭化·公正化하는 경우, 점증하는 국내시장규모를 기반으로 우리의 國際的 地位에 상응하도록 적극적인 通商政策을 의연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임.

—國內制度의 國際規範化 추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한 사항중에 하나는 南北統一이 진행될 경우(즉, 개발정도가 극단적으로 열악한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는 경우) 이미 제도화된 이들 국제규범을 어떠한 ‘適應段階’를 거쳐 통일국가 전체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임.

- 農産物 交易自由化를 포함한 WTO 규정 적용문제, 內國去來인정여부
- 환경보호기준, 근로기준적용문제 등 OECD 제규정 준수여부 등.

####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積極的 連繫

#####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철폐로 NAFTA 및 EU 등 地域主義 극복
- APEC의 交易擴大기능 강화
- 長期的으로는 地域統合體에 參與

—NAFTA, EU 등 地域經濟統合體는 확대와 심화과정을 반복하고 해당 지역의 景氣循環에 따라 대외적 성격이 開放的 또는 閉鎖的 傾向을 보일 것이나, ○市場分割 내지 閉鎖的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短期的 趨勢에 대해

서는 우리의 市場開放 노력으로 대처하고, 市場統合의 성격이 지배할 長期的 趨勢에 대해서는 經濟統合體制의 참여에 대한 고려로 對應.

상호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고 一方的인 進出에 의해 불균형적인 관계가 심화되는 경우 既成立된 地域統合體의 대외관계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질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撤廢를 통하여 이들 지역통합체의 폐쇄성을 극복하여야 함.

#### ○對NAFTA 對應

- 우리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하여 NAFTA가 保護主義的인 經濟블럭을 지향하지 않도록 노력함.
- NAFTA가 全美大陸으로 擴散될 것을 감안하여, 同지역의 高度技術과 풍부한 資源 및 팽창하는 新市場 등의 요소를 우리의 經營資源과 결합하여 大陸全體를 대상으로 한 協力體制를 조기에 構築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NAFTA가 폐쇄적으로 변질되거나 또는 APEC의 실제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NAFTA에의 연계강화 내지 가입을 고려하여야 함.

#### ○對EU 對應

- 汎유럽 경제권의 형성으로 國際的 位相이 더욱 높아질 EU와의 협력은 韓·EU 基本協力協定締結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
-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對EU 直接投資를 增大시키고, 실업문제 등 EU의 構造的 問題解決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EU의 東아시아 진출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APEC의 機能 強化

-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를 지향함으로써 多極化되는 경제블록간의 摩擦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世界經濟統合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RTL(地域貿易自由化)논의의 주도: 우리는 CTI議長國으로서 지역내 자유무역확대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내의 어느 나라보다 積極的으로 投資 및 貿易에 관한 開放政策을 펴므로써 先進國과 開途國間的 이해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함.
- 投資 및 貿易分野 이외에도 APEC 各國이 보유하고 있는 資源의 補完性を 최대한 활용하여 經濟協力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안정된 한반도 주변상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APEC이 지역내 집단안전보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함.

## 5.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 開途國 經濟發展에 協力者로서 寄與
- 개발원조의 확대와 개발경험의 공유
- 동아시아경제의 역동성 활용
- ODA擴大
- 新市場經濟圈의 구조조정노력 支援

一進出을 目的으로 한 종래의 經濟協力 방식에서 탈피하여, 협력상대국의 발전이 우리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協力關係를 정립하여야 함.

- 新興開途國의 經濟發展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므로, 個別企業은 同地域에의 直接投資擴大 등을 통하여 世界資源의 最適活用이라는 目標를 달성하여야 할 것임.

○政府는 開發援助의 擴大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노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간접적 참여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EDCF(經濟開發協力資金)를 OECD의 권고수준(GNP의 0.7%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개도국 경제개발지원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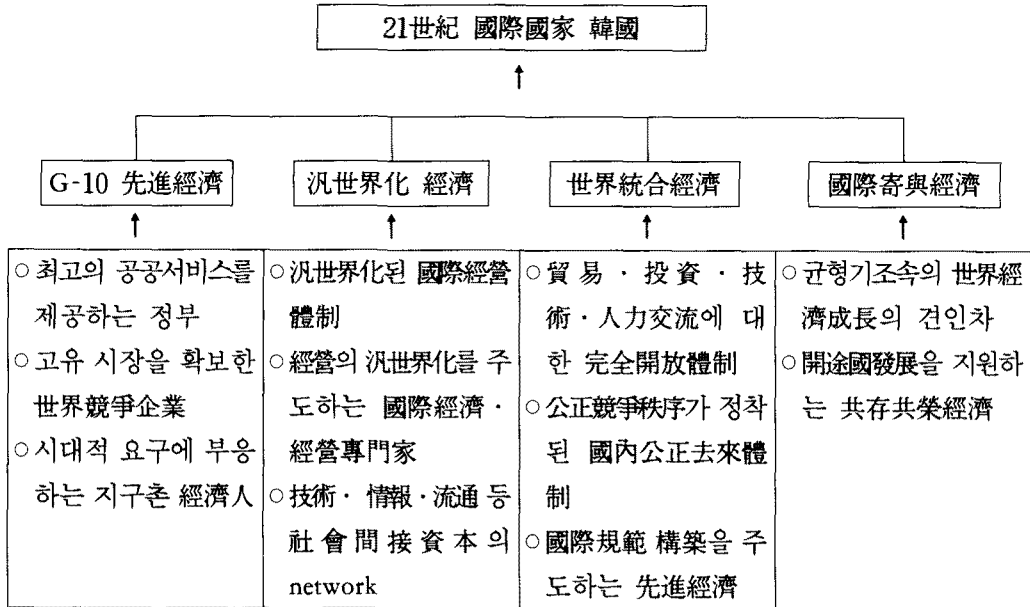
—世界經濟의 새로운 성장核인 中國, ASEAN 등 東아시아 지역과의 協力關係에 있어서는, 이들을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共存共榮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構築하고 同지역의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아프리카, 서남아 등 最貧 開途國에 대해서는 우리의 開發經驗을 전수하고, 순수한 「開發目的」의 ODA 지원을 확대하며, 國內企業의 開發投資를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經濟開發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新市場 經濟圈 국가에 대한 經濟協力の 중점과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룩될 수 있도록 이들의 構造調整의 노력을 支援하는 것임.



## V. 21世紀初 國際國家



### 1. G-10 先進經濟

—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수준과 규모면에서 세계속에서 주요위치를 구축하고, 정부, 기업 등 개별주체가 극대화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G-10 先進經濟」

- 民間經濟主體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가 효율적 행정운영을 통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부

- 자율과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여건속에서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영에 나설 수 있는 기업
- 지구촌 가족의 인식하에 통합된 세계경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질을 갖춘 「世界經濟人」(Global Players)
- 技術化·情報化되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技術基盤·國際情報網 등 新社會間接資本을 갖춘 高級·知識化經濟(例: 世界電算情報網(Global Digital Information Network)의 동북아 거점)

## 2. 汎世界化 經濟

- 기업활동의 汎世界化를 통해 모든 經濟的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國際分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世界經濟의 역동성과 긴밀히 연계된 多邊的·多層的 국제경제관계를 전개해 나가는 「汎世界化 經濟」
- 세계의 어느 곳으로부터이든 최고수준·최상의 조건을 갖춘 天然資源·勞動·資本·技術·流通網 등 모든 경영자원을 최적조직·관리운용, 세계 곳곳에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汎世界化된 세계경영방식이 정착된 國際經營體系
- 세계속에서 個別地域의 文化·社會·經濟 등 모든 부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경영의 汎世界化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인식과 능력을 갖춘 國際經濟·經營專門家
- 世界經濟와의 자유로운 교류가 보장되는 제도속에서 技術·情報·運送 등 사회간접자본의 국제 network를 통해 세계경제와 긴밀한 연계를 이룩한 경제(例: 동북아시아 15억 인구를 포함하는 경제권의 交易·金融·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서울)

### 3. 世界統合經濟

—보편타당한 국제규범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전부문에 걸쳐 자유로운 국제경제교류가 보장되는 「世界統合經濟」

- 貿易뿐 아니라 投資 및 技術 그리고 勞動人力에 이르기까지 모든 國際經濟 交流에 대한 국경장벽이 철폐된 開放體制와 국내에서의 완전한 경쟁조건이 갖추어진 公正去來體制
- WTO 등 國際交易秩序 뿐 아니라 國際環境·勞動 등에 관한 國際經濟規範과 조화를 이룬 공정하고 명료한 국내제도를 갖추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국제규범구축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主要先進經濟(例: OECD 주요위원회 의장국, WTO 주요국의 지위확보, UN사무총장 배출 등)

### 4. 國際寄與經濟

—世界經濟의 成長과 發展을 위한 제역할을 수행하여 先進經濟와는 균형기조하에서 높은 차원의 經濟協力을 전개하면서 後發開途國과는 경제발전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역동성과 연계를 넓혀가는 「共存共榮經濟」

- 先進經濟와는 摩擦과 葛藤의 대상이 아닌 世界經濟成長을 같이 이끌어 가는 동등한 파트너
- 中國·日本·韓國을 중심으로 한 東北亞經濟圈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構造調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開途國들의 발전노력을 投資와 援助로 지원하는 寄與經濟(例: 東北亞 自由貿易圈 形成, 세계복지봉사단 출범 등)



# 附 録



## 【附錄】

主要國의 國際化戰略<sup>1)</sup>

- 日本 · 멕시코 · 싱가포르의 경우 -

日本은 1980년대중반이후 대폭적인 經常收支不均衡에서 야기되는 對外貿易摩擦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최근에는 전후 최악의 不況을 맞은 日本經濟를 再活性化하기 위해 國際化를 추진해 오고 있다. 規制緩和를 통한 경쟁 촉진, 內需主導型 경제로의 전환, 금융·자본시장의 開放을 주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화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일본의 국제화전략이 自發的인 인식에 의해 構想되었다기 보다는 外部의 衝擊에 의해 發想轉換이 強要된 결과이었기에 제도, 관행 그리고 의식의 국제화로 정착되는 데는 長期間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政府主導의 經濟開發戰略의 한계로부터 탈출을 꾀하기 위해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는 멕시코의 國際化는 무역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對外開放과 더불어 政府規制의 撤廢, 경쟁적인 기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經濟自律化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총체적 효율증진에 기여한다는 國民的 理解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국제화는 그 기반이 加速的으로 確固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 가장 國際化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에는 세계속에서의 자국입지를 모색해 나가려는 指導者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行政能力, 적극적인 外國人投資誘致와 開放的인 貿易政策, 國際市民으로서의 人力資源啓發, 그리고 최고수준의 社會間接資本 등의 제반요인이 기여한 바 크다. 점차 범세계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經濟成長核으로서, 그리고 中國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창구로서 役割增大가 기대된다.

1) 本 附錄은 1994년 2월 17일 발간된 오늘의 世界經濟 94-02(제목: 主要國의 國際化戰略)을 轉載한 것임.

## 1. 日本의 國際化 - 외부적 충격에 의한 對證的 性格질어

### 가. 背景: 對外經濟摩擦의 沸騰

일본은 一連의 戰後經濟復舊작업이 완료된 후 60년대이래 東洋圈의 유일한 先進國으로서 선진국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여 국민총생산규모로는 미국 다음가는 經濟大國이자 최대의 對外債權國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여타선진국들로부터 그 제도와 관행을 포함하여 일본경제의 總體的閉鎖性에 대하여 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입지유지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고 따라서 일본의 성장잠재력의 유지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日本은 제도적으로는 60년대말이후 경제의 開放化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그 노력이 무역수지 등 선진국간의 심각한 경제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평가는 계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G7 등을 통해 先進國간의 政策協調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내수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國際化에 의한 대외경제마찰의 해소가 정책의 관심사로 부각되게 되었다.

### 나. '마에카와'報告書: '國際國家'構想

일본정부는 1987년 4월 나카소네 수상의 訪美를 앞두고 內需主導型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핵으로 하는 마에카와報告書を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日本의 대폭적인 經常收支不均衡을 일본의 경제운용은 물론 세계경제의 조화있는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종래의 경제정책 및 국민생활의 양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는 기본적으로 輸出指向의 일본경제구조에서 기

인하므로 國際協助型 經濟構造로의 변혁을 시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측면에서 세계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국가를 최종목표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 시장원리의 존중, 범세계적인 시각을 정책의 主眼点으로 하고 있는 마에카와報告書는 내수주도형의 경제성장, 수출입 및 산업구조의 전환, 적절한 환율의 실현,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국제화의 확대, 국제협력의 증진을 基本方向으로 하였다.

(1) 國際的調和를 위한 産業構造轉換: 국제분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적극적인 구조조정 가속화,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國際化時代에 걸맞는 산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적극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積極的인 構造調整을 유도할 것과 내외경쟁조건의 정비,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을 병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기업은 시장점유확대위주로부터 國際的責任을 다하는 식으로 기업의 經營思考의 전환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 內外競爭條件의 정비와 輸入擴大: 유통, 금융, 건설, 농업, 운수, 통신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개선과 거래관행의 합리화, 그리고 시장개방과 대일직접투자의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競爭的 供給體系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輸入을 擴大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공산품관세의 인하 및 철폐, 정부조달제도의 개선, 대개도국 기술이전과 투자증진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3) 國際社會에 대한 經濟的 寄與擴大: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적인 질서형성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거대한 日本의 경상수지흑자의 환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자금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무역확대 그리고 외

〈表 1〉「마에가와」報告書의 主要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規制緩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經濟 및 市場開放의 양면에서 規制緩和를 도모</li> <li>○ 流通, 金融, 石油産業 등에서의 規制緩和</li> <li>○ 建設市場에서 外國企業에 대한 事業機會 賦與</li> </ul> </li> <li>- 財政의 活用</li> <li>- 住宅·土地對策·社會資本整備</li> <li>- 製品輸入促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工產品關稅 撤廢促進</li> <li>○ 政府調達과  관련 外國製品의 구입촉진과 制度의 改善</li> </ul> </li> <li>- 農業構造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生産性 向上과 輸入政策의 적절한 運用</li> </ul> </li> <li>- 勞動時間短縮</li> <li>- 經濟協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中期目標早期達成 및 그 GNP比의 改善</li> </ul> </li> </ul>
---

채압력경감노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다. 美日構造調整協議(SII: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 實質的 內部市場의 開放

1980년대 후반에 걸쳐 환율조정을 중심으로 선진국간 정책협조가 계속되고, 또 일본자체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對外不均衡이 持續·擴大의 길을 걷자, 1989년 미국은 301條를 앞세워 일본에 대해 雙務的인 開放壓력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그 후속조치로서 1989년 7월부터 1년동안 미국과 일본간에 있었던 구조조정협회는 기본적으로 미·일쌍무간 경제불균형에 대한 認識의 차이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美國은 일본이 수입자유화 등 제도적인 대외교역개방면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불균형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 및 민간의 소비행위, 기업의 계열화 등 國內의 制度와 慣行이 사실상 외국

기업의 대일수출이나 직접투자활동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반면, 日本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경제의 낭비성과 國際競爭力의 弱化에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소비의 확대, 정부투자의 확대, 토지이용의 확대, 계열화 및 배타적인 상관행의 철폐 등을 요구한 반면, 日本은 미국에 대해 소비의 억제, 재정건전화, 기업경영관의 장기화, 독금법의 남용중지, 근로자의 훈련 등을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協商은 결과적으로 日本의 국내제도와 관행을 명료화하고 개선함으로써 대외 개방을 국경조치의 철폐를 넘어서서 實質적으로 國內市場으로 進入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그 포괄범위로 보면 매우 광범위하여 그대로 실행될 경우 일본경제의 國際化가 가속화하는 契機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치가 실행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정부 및 민간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쉽사리 그 결과가 가시화될 수 없다는 弱點이 있었다. 더구나 외국의 압력에 의해 협상이 시작되어 國際化에 대한 인식이 自發的이 아니었다는 점과 더불어 일본이 제도개선에 관해 합의한 것도 주로 美國壓力을 解消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는 점때문에 국제화된 제도의 정착은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한계는 그 후 부진한 경제불균형해소에도 반영되었다.

#### 라. '히라이와'報告書: 經濟改革을 통한 構造的 不況打開

1993년 12월 首相諮問機關인 경제개혁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담고 있는 히라이와報告書を 제출하였다. 1990년대초 이후 경기부진의 장기화 등 거시경제의 한계, 정부규제 및 경쟁제한적 상관행 등 미시적 제약, 구조조정과 신산업등장의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經濟改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이미 제시된 바 있는 마에가와報告書와 금번 히라이와報告書는 두 보고서 공히 經濟構造와 制度의 先進化와 國際化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도 있다. 첫째, 前者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키 위하여 마련된 반면, 後者는 日本經濟의 再跳躍을 위하여 제시되고 있어 비전이 마련된 背景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둘째, 前者는 주로 내수주도의 경제전환과 개방을 통한 국제수지불균형해소를 꾀한 반면, 後者는 경제·사회 構造개혁을 통한 국민생활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主要政策方向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마에가와報告書는 국제국가지향의 비전 제시에 그치고 있으나, 히라이와報告書는 제반규제의 완화를 중심으로 具體的 實行計劃을 바탕으로 선진복지국가지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히라이와報告書는 외국의 압력보다는 국내적 인식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마에가와報告書보다는 실행에 옮겨질 공산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表 2〉 「히라이와」報告書의 國際化 關聯 內容

主要 政策 方向	具體的 政策 內容
〈規制緩和〉 ○ 영입기회의 확대 ○ 소비자 선택폭 확대 ○ 내외가격차 축소로 구매력 증대	○ 경제적 규제, 원칙적으로 자유화 ○ 토지, 주택, 유통, 수입관련, 신규사업 창출 등의 규제완화에 중점
〈社會資本의 擴充〉 ○ 사회자본·생활 기반 확충 ○ 지적·창조적 산업의 전개	○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 교육개혁, 연구개발 체제 정비 ○ 경쟁촉진, 기술지원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
〈內需主導型 經濟構造로 轉換〉 ○ 경상수지 흑자 축소 ○ 국제사회 공헌 확대	○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수입 촉진 ○ 자유무역체제 견지, 관리무역 배제 ○ 개도국 등에 대한 지원 강화
〈財政改革, 金融·資本市場 活性化〉 ○ 재정개혁과 금융·자본시장 개방	○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투명화

國際化와 관련하여 히라이와報告書가 제시하고 있는 經濟改革目標은 첫째, 투명하고 내외에 開放된 經濟社會, 둘째, 世界와 調和되고 共感을 얻을 수 있는 經濟社會의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경제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經濟規制를 완화하여 國內企業과 外國企業간에 競爭을 촉진하고, 수입을 확대하여 內外價格差異를 해소하고 所費를 促進하며, 정보통신 및 교육·연구시설 등 신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확대 등을 통하여 經濟를 再活性化시키고, 여기에서 유도되는 투자의 확대와 저축률의 하락을 經常收支黑字縮小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본 보고서는 건의하고 있다.

단기의 외부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제시하는 長期비전에 그쳤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한다면 日本경제의 閉鎖性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계속 남을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정치개혁과 재정개혁의 성과와 히라이와報告書에서 제시되고 있는 經濟改革이 맞물려 있는 현상태에서는, 경제개혁, 특히 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國際化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될 지는 아직까지는 未知數이다.

## 2. 멕시코의 國際化 - 체질개선과 併行中이므로 성공할 듯

### 가. 背景: 政府主導經濟開發의 限界

멕시코는 20세기초 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권이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석유 산업을 비롯한 주요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典型的인 政府主導의 經濟政策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초부터 시작된 침체기는 급기야는 1982년 對外債務償還의 停止(moratorium)에 이르게 되는 등 극단적인 경제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 당시 財政赤字는 GDP의 17%에 이르렀고, 10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에서 -0.6%로 경제성장이 뒷걸음을 치고 있었다.

1982년 12월에 취임한 마드리드 대통령은 긴축재정, 단계적인 금융자유화, 공기업의 정비를 주축으로 하는 ‘緊急經濟復舊制度(PIRE)’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잠시 인플레이의 감속, 공공적자의 축소 등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 천재지변과 국제원유가격폭락 등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다시 극심한 경제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멕시코는 國際化와 開放政策을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재원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만이 멕시코 경제를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1988년 취임한 살리나스 대통령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의 國際化는 무역 및 해외투자의 自由化를 중심으로 하는 對外開放政策과 더불어 정부간섭의 축소, 선진국수준의 기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화 및 제도개혁 등 國內改革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 나. 國際化

(1) 貿易自由化: 멕시코는 종가세에 의한 관세, 수입품의 최저가격을 정하는 公正輸入價格(Official Import Price)制度, 수입허가 및 수입할당제 등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규제하여 왔다. 특히 1982년 외채위기때에는 모든 수입품이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고 관세도 대폭 인상하는 등 수입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석유류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낮추고 제조업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5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貿易自由化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관세제도의 합리화와 관세율의 인하, 수량규제에 의한 輸入制限措置의 완화, 公正輸入價格制度의 단계적 철폐를 골자로 하는 貿易自由化政策을 펴기 시작하였다.

멕시코는 1986년 GATT가입을 전후하여 대폭적인 貿易自由化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전품목에 걸쳐 실시되던 수입수량제한이 1986년에는 28%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축소적용되었고, 27%에 이르던 평균관세율도 23%수준으로 경감

되었다. 이는 단순한 貿易自由化措置로서의 의의보다는 오랫동안 패쇄되어 있던 멕시코경제를 對外開放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살리나스 정부하에서 開放政策은 더욱 가속되었다. 관세인하정책에 의해 1988년에 최고관세율이 100%에서 20%로 하향조정되었고, 평균관세율은 이제 13%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수입제한대상품목은 9%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1988년에는 公正輸入價格制度도 완전히 철폐되었다.

(2) 外國人投資 擴大: 외채위기속에서 집권하였던 마드리드 정부이후 멕시코는 외채상환능력을 보전하고 국내자본에 의한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왔다. 특히 1989년 5월 발효한 新外國人投資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는 크게 개방되었다.

외국인투자의 許可要件의 緩和: 외국인투자제한이 없는 부문중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自動承認對象이 된다. 즉, 고정자산에 대한 기초투자가 1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신규투자; 투자재원이 외국에서 반입되거나 기존의 외국인투자에 의해 조달되는 투자; Mexico City, Guadalajara, Monterrey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 투자개설 3년간 외환수지 의무를 이행하는 투자;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근로자재훈련과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투자; 멕시코의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 등이 자동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부문이다.

자동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外國人投資委員會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고용, 수출, 지역발전, 기술증진 등 멕시코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투자승인요청이 접수된 후 45일이 경과하면 그 외국인투자는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외국인투자 制限業種의 縮小: 국유화로 출발한 멕시코경제는 그동안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개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민간투자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는 부문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대폭 축소되어, 新外國人投資法에 따라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이제 141개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新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투자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승인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멕시코는 NAFTA에 가입함으로써 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자동승인대상부문과 투자상한액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이행의무를 완화하고 투자제한업종의 대폭축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外國人投資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3) 世界經濟秩序에의 參與擴大: 멕시코의 國際化노력은 국내에서의 관련제도 개혁과 개방정책 뿐 아니라 國際經濟協力機構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종 지역협력관계 또는 쌍무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對外協力の 強化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교역질서체제안에 참여하게 된 멕시코는, 1991년초부터는 미국 및 캐나다와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에 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개시하여 예상을 뒤엎고 1년반만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최대단일시장인 북미시장과 제도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한편, APEC과 OECD에의 가입도 적극 추진하여, 올해부터는 APEC에는 正式會員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의 핵인 아시아·태평양경제와의 통합을 꾀하고 있고, OECD가입도 올해안에 실현되어 선진국과의 정책협조채널을 능동적으로 개설함으로써 멕시코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다. 市場經濟化

1980년대초부터 멕시코는 정부주도의 다분히 社會經濟體制的인 경제운영방식으로부터 市場經濟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에선 공기업의 합리화와 금융개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 公企業 合理化 : 20세기초 혁명을 통해 집권한 멕시코정부는 전통적으로 정부주도의 경제통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가격통제, 신규진입의 규제, 금융세계상의 특혜 등을 통해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예를 들어 1982년의 경우 멕시코의 GDP의 23%가 공기업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1982년 재정·외채위기때는 공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수지악화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경제효율을 높이고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大大的인 公企業整理作業에 착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영이 부실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公企業改革作業은 점차 대기업의 정비로 확산되었다. 특히 살리나스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격통제의 철폐와 같은 經濟規制緩和措置와 함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가 유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주요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왔다. 전화, 항공, 제철 등 부문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외국인투자에 의한 참여의 폭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82년에 1155개에 달하던 멕시코의 공기업은 93년에는 150개정도로 축소되었고, GDP에서의 비중도 8% 이하로 줄어들었다.

(2) 金融改革 : 금융부문은 여타부문보다는 경영합리화가 일찍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금리규제, 신용할당 등 各種規制에 묶여 있었다. 특히 보르티요 정권에 의한 상업은행의 국유화조치의 후유증으로, 멕시코의 금융기관의 중계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자금조달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88년 집권한 살리나스 정부는 經濟安定化措置와 더불어 대폭적인 金融改革措置를 취하였다. 이는 (1) 여수신 금리자유화와 금리인하, (2) 공공부문에 대한 저리용자금지, (3) 지불준비율의 완화, (4) 상업은행의 민영화, (5) 국책금융기관이 개혁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자산(M4)의 평균신장율이 13.5%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고, 금융자산저축율도 개혁전의 29% 수준에서 39%까지 상승하는 등 살리나스 정부의 金融改革措置는 은행의 공신력회복과 기능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經濟安定化政策과 병행하여 추진된 살리나스정부의 國際化政策은 거시경제의 개선과 국제경제활동과 지위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노력은 경제의 총체적 효율증진을 통해 멕시코전체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멕시코의 국제화노력은 점차 그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3. 싱가포르의 國際化 - 지도자의 비전과 國民意識의 合作品

#### 가. 背景: 高度國際社會의 指向

일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로 東洋圈에서 2위의 경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國際化의 수준에서는 동양최고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港口都市로서 출발한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초부터 開放都市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항구가 전부인 국토, 이에 따른 자원과 인력면에서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 싱가포르가 선택한 경제발전전략은 여타 신생독립국들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제약과 자본 및 기술의 열악함때문에 한계를 맞게 되어 곧 수출확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勞動集約的인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출을 1970년대초이후에 資本集約的인 부문으로 전환하였고, 1980년대초이후에는 자본, 지식, 기술집약적인 부문으로 수출의 중심을 바꾸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70년대말에는 정책의 초점이 人力資源의 啓發에 두어지

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술산업, 즉,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금융산업에 싱가포르의 장래를 걸고, 이를 위해 法制度를 外國人投資에 가장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의 제도개혁과 인력개발을 國際化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 나. 企業型國家의 運營: 政策의 國際化

싱가포르정부는 국가경영에 있어 정치적 요소를 극소화하고, 청렴·공정·효율에 바탕을 둔 행정을 수행하며, 정책의 透明性和 持續性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행정부의 기본임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되, 주택, 항만, 공항, 통신 등 社會間接資本관련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高附加價值産業을 대부분 國營化하면서도 정부활동의 公共性和 국부의 창출을 위한 收益性이라는 두가지 국가경영원칙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애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각종공과금이나 세율의 책정도 그 수준을 높게 책정하되 기업활동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성격상, 싱가포르 국적기업이나 외국기업을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경제부흥을 위한 협력의 상대로 보고 각종혜택을 제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企業型 國家運營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 다. 經濟의 國際化

싱가포르가 國際化를 통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1)싱가포르의 세계속에서의 고유한 위치(niche)를 파악하고 이를 향해 정책을 추진하는 지도

자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능력, (2)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방적인 貿易政策, (3) 숙련노동력의 제공, (4) 社會間接資本의 충분한 공급, 그리고 (5) 쾌적한 生活環境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自由貿易體制의 維持: 1965년에 230개품목에 적용되던 輸入割當制는 1970년대 초이후 폐지되거나 관세화되었고, 19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최고관세율이 5% 정도로 사실상 자유무역항으로서 自由貿易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自國産業保護措置의 撤廢: 기간산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대부분을 국영기업(약 90개의 공사와 약 500개의 국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여타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들 기업들을 육성·보호하기보다는 철저한 競爭條件속에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補助金制度를 폐지하고, 세제 및 금융상의 특혜를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競爭制限的商行爲에 대해 公正去來制度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積極的인 外國人投資誘致: 외국기업을 적대시하거나 경제예속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共生關係 또는 同盟關係에서 인식한다. 그리하여 경제정책이나 노동조합의 활동도 영업위험을 줄이거나 영업을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원할때, (1) 관련 절차를 일괄처리(one-stop service)하는 經濟開發廳(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공장설립, 부지선책, 노동력확보, 금융, 하청업체 연결, 합작대상업체의 소개 등 모든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와 (3) 외국근로자의 채용이 허용되어 있고, (4) 기자재 및 원자재의 수입이 完全免稅로 이루어지고, (5) 자본거래와 과실송금이 自由化되어 있으며, (6) 각종 租稅支援(5 내지 10년간의 수익에 대한 30% 세액공제 등의 창업인센티브, 30% 추가공제하는 사업확장 인센티브, 90% 소득공제의 수출인센티브 등)을 받고, (7) 동반가족의 취업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정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투자여건과 결합하여 外國人直接投資를 확대시키고 있어, 90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누계가 350억불에 이르고 있고 매년 30

역불정도의 신규외국인직접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人力啓發의 國際化: 싱가포르는 (1)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교육·양성한 노동력을 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2) 엄격한 노사관리를 통해 인력자원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힘쓰고 있다. 교육은 철저한 직업교육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제화의 기초언어인 영어로 교육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 國際市民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합리주의와 실용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國民經濟意識을 뿌리내리는 데 교육의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大學教育도 정규대학의 확대는 억제하고 대신 공업전문대학을 지원하여 공업계대학졸업생은 1960년이후 20년간동안 10배 증가하는 동안 인문계는 5배 증가에 그쳤을 뿐이다. 職業教育은 정부단독보다는 외국기업과 정부가 共同設立한 직업훈련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이 제공되고 운영비를 분담하고 훈련노동력에게 해외외국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연기시켜 주는 등 가급적 고용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임금인상을 물가인상, 생산성제고 및 기업이윤의 보장 등과 연계하여 國家賃金委員會(National Wages Council)가 기준율을 결정하고 法制度上 노사분규를 불허하는 등 철저한 노사관리를 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유리한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社會間接資本의 충분한 제공: 통신, 운송,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여 國際都市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들 산업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만 보지않고, 관광산업이나 또는 국제회의사업과 같이 국가수익산업으로의 육성과 연계시키고 있다.

세계 180개국과 직통전화가 가능하고 60개국과 컴퓨터연결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하여 행정, 교육, 연구, 유통 등 주요활동들이 單一綜合電算網으로 연결되는 등 최고수준의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이러한 첨단인 통신시설은 싱가포르가 국제금융·정보·회의센터로서 자리잡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7만척의 선박이 기항하는 世界最大港口의 하나로 연간2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싱가포르공항은 세계 110개도시와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최근 수년간 세계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고 있고 싱가포르항공은 최우수서비스 항공사로 선정되고 있다.

人的交流를 유도하는 生活環境: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외국인을 위한 각종 형태의 주택이 건설되고, 30개의 외국인학교설립을 허가하는 등 외국인의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의 經濟센터 : 싱가포르는 그동안 아세안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아세안이 정치적집단으로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아세안自由貿易地帶(AFTA : ASEAN Free Trade Area) 등 地域經濟協力體로 기능케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등 아세안의 경제센터로서의 입지강화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아세안의 금융센터이자 아세안교역의 중계항으로 자리를 굳히고, 최근에는 Johor(말레이시아)-Singapore-Riau(인도네시아)를 아세안經濟成長의 새로운 중심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이제는 중국에 대한 투자와 교역의 창구로서 역할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國際化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國際化된 국가로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점차 汎世界化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향후 아세안의 成長核으로서 더욱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IEP 發刊資料 案內

###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衍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の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鈺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 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の 金融自由化와  恩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Jin-Soo Yoo,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政策資料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

1994年 4月 27日 印刷

1994年 4月 29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 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本 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를 禁함

ISBN 89-322-2006-9